

#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의 사건 구조: 사동(causation)개념과 생성 어휘부 이론을 중심으로

김 윤 신  
서울대학교

yoonsin69@dreamwiz.com

## 1. 서론

Vendler(1967)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동사의 상에 대한 연구에서 동작 동사(activity verbs)와 완성 동사(accomplishment verbs)의 구분에 대한 논의는 항상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로 여겨져 왔으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Smith(1999)와 같은 상적 부류(aspectual class)에 대한 연구에서는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를 사건구조의 동질성(homogeneity)과 이질성(heterogeneity)에 두고 있다.

특히 타동사 구문의 상적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더 더욱 극명하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수레를 밀다’의 ‘밀다’와 같이 동작 동사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떡다’와 같이 논항의 특성에 따라서 사건의 종결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짓다’와 같이 분명한 완성 동사로만 나타나는 타동사가 있다. ‘떡다’와 같이 논항의 특성에 따라 구문의 상적 부류가 달라지는 동사의 경우는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와 그 대상 논항에 대한 많은 이론들 가운데 Krifka(1992, 1998)의 점진적 대상(incremental theme)과 계량화(Quantization)에 대한 견해가 가장 주목을 받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건의 진행은 대상 논항의 정도에 반영되며 계량화된 대상 논항은 사건의 완결점(telic point)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이고 계량화된 대상 논항을 취하는 동사는 완결점을 갖는 완성 동사이며 그러한 논항을 갖지 않는 동사는 동작 동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Krifka(1998)도 이와 같은 점진성과 자신의 견해에 오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Rothstein(2004)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sup>1)</sup>

본 논문에서는 실제의 예를 통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로 해석되는 타동사의 상적 부류를 생성 어휘부 이론의 사건

<sup>1)</sup> 이 부분에 대해서 3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구조와 사동 개념을 근거로 한국어와 영어의 대표적인 예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의 구분과 그 스펙트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먼저 타동사인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의 분포를 살펴보고 ‘밀다’와 같은 전형적인 활동 동사(motion verb), ‘먹다’와 같은 소비 동사(consumption verb), ‘짓다’와 같은 창조 동사(creation verb)의 논항이 갖는 특성과 사건 구조의 연관성을 Krifka(1992, 1998)와 Rothstein(2004)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생성 어휘부 이론(Generative Lexicon Theory)의 논항 폐쇄(Argument Closure)의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역시 생성 어휘부 이론에서 제시하는 사동의 사건 구조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세 부류의 동사들이 서로 다른 사건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 2. 논항의 분포와 상적 해석의 차이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를 특징짓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대상 논항의 특성에 대한 논의이다. 동작 동사가 행동주(agent) 논항만을 갖는 자동사인 비능격 동사(ungative verb)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논항의 특징에 대한 논의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 모르나 대상 논항을 갖는 타동사를 논항으로 갖는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완성동사의 완결성(telicity)은 그 직접 목적어의 자질에 의해 결정되며 반면 동작동사의 완결성은 직접 목적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측정 부사구, 방향 부사구, 또는 경로 부사구 등에 의해 제한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1) (a) Mary built the house #for a year/in a year.  
       (b) Mary built houses for a year/#in a year.
- (2) (a) John pushed the cart for an hour/#in an year.  
       (b) John pushed carts for an hour/#in an hour.
- (3) (a) Mary ate the sandwich.  
       (b) Jane mowed the lawn.  
       (c) Dafna built a house.

Rothstein(2004)은 (1)와 (3)의 예들은 동사의 직접 목적어인 대상 논항의 특징에 의해서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의 완결성이 결정되는 반면에 (2)의 경우에는 문장의 완결성이 동사의 직접 목적어인 논항에 의존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전자의 두 가지 경우는 완성 동사이며 후자는 동작 동사이다.

한국어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타동사 구문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다음 (4)-(6)의 예들은 그 논항의 실현과 같은 표면적인 형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상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 (4) (a) 영화는 수레를 밀었다.
- (b) 영화는 수레 하나를 밀었다.
- (5) (a) 철수는 사과를 먹었다.
- (b) 철수는 사과 하나를 먹었다.
- (6) (a) 동호는 집을 지었다.
- (b) 동호는 집을 한 채 지었다.

(4)의 ‘밀다’는 비교적 명백하게 동작 동사의 행태를 보이는 반면 (5)의 ‘먹다’는 동사가 취하는 대상 논항의 특성에 따라 동작 동사나 완성 동사의 특징을 모두 보이고 있다. 그리고 (6)의 ‘짓다’는 분명한 완성 동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4b)와 같이 대상을 계량화(quantization)할지라도 ‘밀다’와 같은 동작 동사는 그 상적 변이가 일어나지 않지만 (5b)는 계량화할 경우 분명히 완성 동사의 특징을 보인다. (5a)는 미완결 사건을 나타내는 동작동사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타동사는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의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특히, ‘먹다’와 같은 동사는 늘 동작동사와 완성 동사의 경계에서 맥락에 따라서 그 상적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점진성(Incrementality)과 계량화(Quantization)

Krifka(1992, 1998)는 술어의 완결성은 점진성과 계량화의 두 가지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Krifka에 따르면 점진적인 술어는 대상의 외연으로부터 대상이 참여하는 사건의 정도로까지 대응하는 동형관계(homomorphism)를 나타내며 직접 목적어의 점진성 자질이 동사구 전체로 삼투되어 동사구의 점진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점진적인 완성 동사는 완결 상태로 나아가는 사건이므로 완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비점진적인 동작 동사는 직접 목적어의 계량화 여부가 동사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계량화 여부에 따라서는 ‘run’이나 ‘push a cart’와 같이 비계량적이고 누적적인 동작 동사는 미완결의 사건을 나타내며 ‘build a house’와 같이 계량화된 술어는 완결된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Krifka는 점진성은 완결성의 필요조건이고 점진성과 계량화 모두는 완결성의 충분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점진성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완결성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않는다.

앞의 (4)-(5)의 한국어의 예에서 보면 (4)의 ‘밀다’는 대상 논항 자체가 점진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량화한다 하여도 사건의 완결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와 달리, (5)의 ‘먹다’는 대상 논항이 점진적인 변화를 반영하나 계량화되지 않은 (5a)의 경우에는 완결된 사건을 보장하지 못한다. 반면, (6)의 ‘짓다’의 경우에는 대상 자체가 점진적인 변화를 반영하지는 않으므로 점진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도입되는 결과물을 나타내며 이것은 곧 결과 상태의 분명한 표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보장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의 완결은 함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진성의 불완전성에 대해서는 Krifka(1998)도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peel an apple’과 같이 동사의 전체 대상 변화의 정도가 동사의 사건 진행의 정도를 반영하지 않는 동사들이 있다. 둘째, ‘build a house’와 같이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가 대상인 논항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짓다’와 같은 창조 동사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에 Rothstein(2004)은 세 가지 문제점을 덧붙였다. 첫째, ‘wiped the table’과 같이 결합하는 시간 부사구에 따라서 완성 동사나 동작 동사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repair the computer’와 같이 완결된 동사구가 핵이지만 대상 논항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사건의 진행을 알아 볼 수 없는 동사들이 있다. 셋째, ‘John sang babies asleep’와 같이 파생 결과 구문에서 대상 논항의 정도가 어떤 의미에서 관련 사건의 정도나 완결점을 나타내는가에 대하여 불분명한 동사들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대상의 점진적인 변화나 계량화를 통해서 완성 동사와 동작 동사를 구별하는 기준을 혼란스럽게 한다. 또한 Filip(1993,1999) 등은 Krifka의 사건과 대상 논항의 동형 관계(isomorphism)에 있어 그 도메인이 너무 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othstein(2004)은 대상 논항의 정도가 사건의 정도를 결정한다기 보다는 대상 논항의 변화의 정도가 사건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단순히 논항의 특성만으로 점진성이 정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Rothstein(2004)은 완성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은 동작(activities) 사건과 그와 함께 병행되는 점진적인 과정(incremental process)인 전이 사건(transition event), 그리고 마지막 완성 사건이 완결된 마지막 결과 상태로 구성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점진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건 구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완성 동사의 사건 구조가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하위 사건으로 이

루어져 있음을 밝혀 주는 것이다. 사건 구조 자체에 대한 논의는 3장에서 자세히 진행하도록 한다.

그런데 앞에서 제기한 점진성과 계량화에 대한 문제만으로는 ‘먹다’와 같은 소비 동사와 ‘짓다’와 같은 창조 동사의 분포와 의미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대상 논항의 변화 정도가 전체 사건의 변화 정도를 반영한다는 또 다른 설명도 창조 동사의 논항에는 적용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집을 짓다’가 완결된 상태의 집이 있을 경우에 참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이 이와 같은 동사의 상적 의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큰 이슈가 된다. 형식 의미론의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논쟁을 가능 세계와 같은 양상 논리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있으나 이는 ‘화자’와 ‘청자’라는 주관적이고 변화무쌍한 맥락에 의존하고 있어 보다 객관적인 설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논항의 실현의 차원에서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의 완결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를 위해 생성 어휘부의 논항 폐쇄와 관련지어 동사의 완결성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 4. 논항 폐쇄(Argument Closure)와 완결성

Pustejovsky(2000)는 다음과 같은 동사의 교체 현상을 논항과 그 논항의 통사적 실현을 막는 기저의 의미 표현 사이의 관계인 어휘 차단(lexical shadowing)으로 설명하고 있다.

- (7) (a) Mary buttered her bread.  
(b) Mary buttered her bread with an expensive butter from Wisconsin.  
(c) \*Mary buttered her bread with butter.
- (8) (a) John built a house out of bricks.  
(b) John built a brick house out of limestone bricks.
- (9) (a) Mary risked death to save her son.  
(b) Mary risked her life to save her son.
- (10) (a) John gave a talk to the academy today.  
(b) John gave a talk today.  
(c) \*John gave a book today.

(7)은 동사 ‘butter’가 그림자 논항(shadow argument)인 ‘butter’의 실현을 제한하는 경우며, (8)은 동사 ‘build’가 당연 논항(default argument)인

'bricks'가 부가어로만 실현되도록 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9)의 'risk'는 'death'와 'life'와 같이 모순 개념의 논항이 상보적 분포를 보이도록 차단하고 있다. 마지막 (10)의 'give a lecture'의 경우에는 'give' 자체가 요구하는 논항들을 모두 실현시키기도 하지만 (10b)와 같이 착점(goal) 논항을 생략시키는 경우도 허용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c)와 같이 'a lecture'가 아닌 'a book'과 결합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논항의 차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의 '어휘 차단'을 Pustejovsky(2000)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1. 논항 차단(ARGUMENT SHADOWING): 논항의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차단된다:
  - i. 동사의 의미에 의해 직접 차단되는 경우  
(ex. 동족(목적)어 구성(cognate construction))
  - ii. 구절의 의미에 의해서 차단되는 경우  
(ex. build)
2. 상보적 차단(COMPLEMENTARY SHADOWING): 어떤 논항의 표현이 상보적인 방식으로 다른 표현을 차단한다.(ex. risk)
3. 공동 합성적 차단(CO-COMPOSITIONAL SHADOWING): 어떤 논항의 표현이 동사와의 상호작용의 양상에 따라서 그 수의성이 달라진다.(ex. give a lecture)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현재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의 논항 실현은 첫 번째 유형인 '논항 차단'의 경우에 해당한다. 각각의 동사의 논항 실현을 살펴보도록 하자.

- (11) (a) John pushed the cart.  
(b) John pushed the cart to the door.  
(c) \*John pushed to the door.
- (12) (a) Mary ate an apple.  
(b) Mary ate.  
(c) Mary ate something.
- (13) (a) Mary built the house.  
(b) Mary built the house out of bricks.  
(c) \*Mary built out of bricks.
- (14) (a) 영화는 수레를 밀었다.  
(b) 영화는 수레를 문까지 밀었다.

- (b) \*영희는 문까지 밀었다.
- (15) (a) 철수는 사과를 먹었다.
- (b) 철수는 먹었다.
- (c) 철수는 뽕가를 먹었다.
- (16) (a) 동호는 집을 지었다.
- (b) 동호는 벽들로 집을 지었다.
- (c) \*동호는 벽들로 지었다.

(11)과 (14)는 타동의 동작 동사인 활동 동사로 대상물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사들은 완결된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11b)와 (14b)와 같이 완결점을 표시하는 착점 부가어를 첨가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이는 대상 논항이 점진적이지 않고 계량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부가어의 생략은 허용되지만 필수적인 논항의 생략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비교할 만한 예가 (13)과 (14)의 창조 동사이다. 이 동사들도 역시 점진적인 대상 논항을 취하지는 않지만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논항을 대상으로 취하고 있으며 행위의 영향을 직접 입는 재료 논항을 당연 논항으로 취하고 있다. 이 때 당연 논항은 (13b)와 (16b)에서와 같이 사격 논항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와 달리 (12)와 (15)는 소비 동사의 예로 (12b)와 (15b)와 같이 맥락에 따라서 필수 논항의 생략이 허용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12c)나 (15c)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므로 무엇인가 대상 논항에 특별한 자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들을 살펴보면 논항의 생략에 무엇인가 일정한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논항 차단’이라고 할 수 있다.

Pustejovsky(2000)는 이와 같은 논항 차단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1. 어휘 폐쇄(LEXICAL CLOSURE): 논항이 술어에 대하여 사격 구절로서만 실현된다.
2. 기능 폐쇄(FUNCTIONAL CLOSURE): 논항이 전형적으로 직접 논항으로 실현된다.

‘어휘 폐쇄’가 일어나는 술어들은 주로 당연 논항이나 그림자 논항을 갖는 경우로 다항가(polyvalency) 현상을 나타내는 동사의 논항에 나타난다. 반면 ‘기능 폐쇄’는 차단되는 논항이 참논항이며 폐쇄되는 논항은 변수에 대한 표시로 취급된다.

위의 예 (11)-(16)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단순한 활동 동사의 경우에는 논항 차단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수적인 논항의 생략이 아

닌 수의적인 부가어 성분의 생략이 일어날 뿐이다. 따라서 수의적인 생략이 일어나는 활동 동사의 경우에는 논항의 차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창조 동사의 경우에는 재료 논항은 어휘 폐쇄를 통해 차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특질 구조의 의미에 나타난다.

- (17) (a)  $push \Rightarrow \lambda y \lambda x \lambda e [push(e, x, y)]$   
 (b)  $build \Rightarrow \lambda y \lambda x \lambda e \exists z: \mathbf{material} [build(e, x, y, z)]$   
 (c)  $arrive \Rightarrow \lambda x \lambda e \exists y: \mathbf{loc} [arrive(e, x, y)]$

(17a)는 ‘push’의 작인역(Agentive)에 해당하는 의미로 동작 사건의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17b)의 ‘build’는 재료 논항에 해당하는 것이 어휘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 논항은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 영향을 입는 재료 논항은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전형적인 완성 동사의 사건구조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성이 없는 대상 논항을 갖는 ‘push’의 경우 그 어떤 사건의 완결점을 도입할 만한 논항이 어휘적으로 내재화되거나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만약 대상 논항이 점진적이지 않더라도 완결점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17c)의 ‘arrive’와 같이 완결점과 관련된 당연 논항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push’의 경우에는 그러한 당연 논항이 없다.

그런데 소비 동사의 경우는 논항이 사격 구절로 실현되는 어휘 폐쇄의 경우가 아니라 논항이 생략되는 경우이다. 이는 화용적 맥락에 의해서 폐쇄가 되는 기능 폐쇄에 의해 논항이 차단되는 것이다. Pustejovsky(2000)에 의하면 이러한 맥락에 의한 논항 폐쇄의 경우를 만약 어휘 폐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면 생략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서로 다른 특질 구조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은 생성 어휘부 이론이 복수의 항목을 나열하는 것을 피하고 어휘들 사이의 관계를 생성적인 기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생성 어휘부 이론에서는 어휘 폐쇄가 아닌 기능폐쇄의 방식을 도입한다. 이 때 새로운 분기 유형(branching type)의 변수를 만들어 내는  $\lambda^*$ 의 연산자를 사용한다. 이 연산자는 다음과 같은 공리를 따른다.

- (18) (a)  $(\lambda^* x \phi) a = \phi$ , where every occurrence of  $x$  is replaced by  $a$ , unless,  
 (b)  $a = \varepsilon$ , where every occurrence of  $x$  is replaced by the Skolem constant of  $x$ .



이 공리에 따라 소비 동사 'eat'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 (19) (a)  $\lambda^*y\lambda x\lambda e[eat(e,x,y)](mary)$   
 (b)  $\lambda e\exists y[eat(e,mary,y)]$

$\lambda^*$ -연산자는 변수를 폐쇄하는 역할을 하므로 (19a)를 (19b)로 바꿔 주게 된다.<sup>2)</sup> 따라서 (19b)와 같이 대상 논항이 폐쇄되게 된다. 따라서 소비 동사는 맥락에 따라서 대상 논항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치 동작 동사와 같이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실제로 '뭔가'를 먹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맥락에 의해 그 실현이 좌우되는 논항이므로 어떠한 동사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어휘 폐쇄에 의한 논항 차단에 의한 논항의 특성은 활동 동사와 창조 동사의 특징을 분명하게 구분해 준다.

결론적으로, 논항의 특성에 따른 활동 동사, 소비 동사, 창조 동사의 구분은 어느 한 자질만을 고려해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점진성과 계량화, 그리고 논항 폐쇄 등을 모두 다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

	점진성	계량화 <sup>3)</sup>	어휘 폐쇄
활동 동사	-	-	-
소비 동사	+	+	-
창조 동사	-	+	+

<sup>2)</sup> Pustejovsky(2000)에서는  $\lambda^*$ -축약(abstraction)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Given a variable  $u$  of type  $\square$ , and an expression  $a$  of type  $b$ , then  $\square(\lambda^*u a)\square^{M,\square}$  is that function which either:

- (i) for any object  $k$  in  $D_\square$ ,  $f(k) = \square a\square^{M,\square}$ , where  $\square'$  is just like  $\square$  but that  $\square(u) = k$ , or
- (ii) given an epsilon transition, there is at least a single object  $k$  in  $D_\square$ , where  $f(e) = \square\exists u a\square^{M,\square}$ , where  $\square'$  is just like  $\square$  but that  $\square(u) = k$ .

<sup>3)</sup> 이 때, 계량화의 자질은 계량화된 명사구의 자질이 동사구의 상적 해석에 영향을 주느냐의 여부를 지시한다. 따라서 활동 동사는 [-계량화]값을 갖는다.

이와 같이 논항의 자질만으로 이 세 부류의 동사들은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 두 가지 부류로 양분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사건 구조의 특성을 고찰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 5. 복합 사건 구조와 사동(Causation)

일반적으로 복합 사건의 구조는 이질적인 두 개의 하위 사건으로 이루어진 완성 동사와 달성 동사에 할당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먼저 앞에 제시한 타동의 활동 동사, 소비 동사, 창조 동사들이 모두 복합 사건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논증해 보기로 하자.

먼저 이 세 부류의 동사들은 비록 논항의 점진성이나 그리고 계량화 가능성, 그리고 논항 폐쇄 등의 경향은 다르나 모두 타동사로서 대상 논항을 직접 목적어로 갖는다. 그러므로 사건의 참여자로서 대상 논항이 존재하며 따라서 대상 논항은 사건의 진행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타동(transitive)란 원래 행동주의 행위가 목적어가 매개가 되어 전달되는 것이므로 두 개의 하위 사건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그 하위 사건들 간의 관계나 하위 사건들의 특성의 차이가 전체 사건의 차이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이 세 부류의 동사들이 모두 접사에 의한 피동화가 가능하다면 이는 분명히 복합 사건 구조를 갖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피동화는 사건의 결과 부분이 부각되는 상적인 변화를 겪게 되므로 복합 사건 구조를 가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특히 사동(causation) 구조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각 사건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동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Comrie(1981) 등이 정의한 바와 같이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이루는 두 개의 하위 사건이 이루는 관계를 사동이라고 한다. 이는 대부분의 타동사가 사동의 범주에 포함되는 넓은 정의일 수는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사동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사동의 개념을 받아들인다.

사동의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에 속하는 것이 영향 입음성이 대상 논항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대상의 의미역할을 갖는 논항이 모두 영향 입음성의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동사들, 즉 활동 동사, 소비 동사, 창조 동사들은 각각의 동사들이 나타내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대상 논항에 반영되는 사건의 흔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대상 논항이 영향을 입어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반영된다는 것은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사동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세 부류 동사의 사동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밀다’와 같이 이동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활동 동사의 경우에는 논항의 영향 입음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향 입음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논항의 상태 변화인데 ‘밀다’의 대상 논항은 상태의 변화라기보다는 이동물(figure)의 위치가 변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관찰한 바와 같이 영향을 입지 않은 대상 논항을 갖는 동사는 완성 동사가 될 수 없다. 대신 ‘밀다’의 경우 타동성에서 오는 기본적인 복합 사건 구조를 갖는다.

둘째, ‘먹다’와 같은 대상은 전형적인 점진적인 대상이다. 이 경우에는 먹는 과정이 지속됨에 따라서 대상 논항인 ‘먹을 것’의 양이 줄어든다. 따라서 사건의 변화는 논항의 상태변화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3)과 (5)의 직접 목적어인 대상 논항들은 모두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완결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한다. 즉, Krifka(1992, 1998)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점진성은 완결성에 대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이다. (5a)와 같이 계량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발화 맥락에 의해서만 완결된 사건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5b)와 같이 계량화된 경우에는 완결된 사건을 의미하게 된다.

셋째, ‘짓다’와 같은 창조 동사의 경우에는 대상 논항이 영향을 입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대상 논항은 결과 상태 그 자체이므로 영향 입음성을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4장에서 논의하였던 특질 구조의 의미에서도 행동주의 행위가 영향을 주는 재료 논항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짓다’와 같은 창조 동사는 분명한 복합 사건 구조를 갖는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사건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6. 미완료 역설(Imperfective paradox)과 하위 사건의 중첩

Dowty(1979)는 미완료 역설을 이용해서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를 구분한다. 동작 동사는 진행형인 미완료상이 완료상을 함의하는 미완료 역설이 성립하는 반면 완성 동사는 이러한 미완료 역설이 성립하지 않는다.

- (21) (a) Mary is running. → Mary has run.  
 (b) John is building a house. □ John has built a house.  
 (22) (a) 영희가 뛰고 있다. → 영희가 뛰었다.  
 (b) 철수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 철수가 그림을 그렸다.

이것은 사건의 동질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동작 동사의 경우에는 동질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한 시점에서 그 사건이 진행 중이면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완성 동사의 경우에는 과정사건과 결과 상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건의 한 시점에서 그 과정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결과 상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그 사건 전체가 다 완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활동 동사, 소비 동사, 창조 동사에서의 미완료 역설에 대하여 살펴보자.

- (23) (a) 영화가 수레를 밀고 있다. → 영화가 수레를 밀었다. (항상)
- (b) 철수가 사과를 먹고 있다. □ 철수가 사과를 먹었다. (때때로)
- (c) 동호가 집을 짓고 있다. □ 동호가 집을 지었다. (불가능)

이 예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 유형의 동사들은 이 미완료 역설에 있어서 민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3a)의 활동 동사는 미완료 역설이 성립하는 반면에 (23b)의 소비 동사는 맥락에 따라서 미완료 역설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23c)의 창조 동사는 전형적인 완성 동사로 미완료 역설이 성립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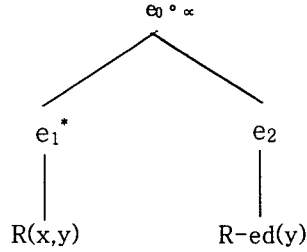
김윤신(2004)에서는 이와 같은 미완료 역설을 근거로 하위 사건의 관계를 추론하여 달성 동사(achievement verb)의 유형을 나누어 보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미완료 역설이 맥락에 의존하는 경우는 두 개의 하위 사건들이 부분적으로 중첩하는 사건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것은 사건 구조상 동질적인 하나의 사건을 이루는 동작 동사와 달리 부분적으로 성립함을 의미하며 이는 일부의 사건이 겹치는 불완전한 동질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건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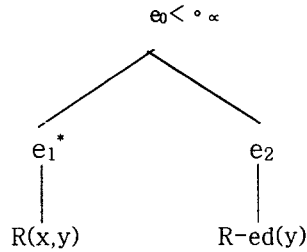
---

<sup>4)</sup> Pustejovsky(1995)에서는 동사의 선후 관계가 중첩(□), 선행(<), 부분 중첩(<□) 등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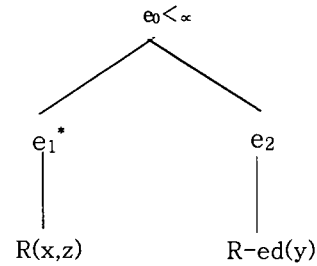
(24) (a) 활동 동사



(b) 소비 동사



(c) 창조 동사



이와 같은 사건 구조에서 (24a)의 활동 동사는 두 개의 하위 사건을 가진 복합 사건 구조이지만 두 하위 사건이 완전히 중첩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단순 사건인 동작 동사의 상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Pustejovsky(1995)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건이 완전히 중첩되는 경우 사동의 관계가 유지되는 않는다. (24b)와 같은 소비 동사는 사건이 일부 중첩되는 완성 동사이 사건 구조를 갖는다. 맥락에 의해서 동작 동사의 특성을 보이는 것은 이와 같은 중첩의 사건 구조에 의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4c)의 창조 동사는 전형적인 완성 동사의 사건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 종류의 타동사 구문은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의 이분법적인 분류에 의해서 구분되기 보다는 이와 같은 하위 사건의 관계에 의해서 그 각각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7. 결론

지금까지 동사의 상적 부류 설정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타동사의 세 가지 부류(활동 동사, 소비 동사, 창조 동사)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와 생성 어휘부 이론에 기반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의 구분은 흔히 동사의 차원에서 보다는 오히려 동사구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고 또 그것이 합당하게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동사들이 논항의 자질과 사건 구조에 있어서 서로 유사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공존하여 일종의 스펙트럼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논의는 아니지만 한국어 동사의 어휘상에 대한 또 다른 시도라는 데 의의를 두고 앞으로 더 많은 언어학적 증거와 논리를 찾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윤신(2001a), 파생동사의 어휘의미구조 - 사동화와 피동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윤신(2001b), '한국어 동사의 어휘의미구조와 피동화의 제약', 「언어학」 제 30호, 89-112.
- 김윤신(2002), '한국어 사동화와 어휘의미구조의 변화: 생성어휘부(Generative Lexicon) 이론에 의한 접근', 「언어와 정보」 6-2, 57-82.
- 김윤신(2004),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사건함수 '-고 있다'의 기능", 「형태론」 6-1.
- 김윤신, 이정민, 강범모, 남승호(2000), "한국어 피동동사의 의미구조와 논항 실현", 「인지과학」 11-1, 25-32.
- 이정민, 김영화, 강범모, 남승호, 이하규(2000),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 소화출판사.
- Comrie, Bernard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Oxford: Basil Blackwell.

- Dowty, David. R.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Reidel.
- Krifka, Manfred (1992), Thematic relations as links between nominal reference and temporal constitution, in Sag, Ivan and Anna Sabolsci (eds.) *Lexical Matters*,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 Krifka, Manfred (1998), The origins of telicity, in Susan Rothstein (eds.) *Events and Grammar*, Dordrecht: Kluwer.
- Lee, Chungmin, Seungho Nam and Beom-mo Kang (1998), Lexical Semantic Structure for Predicates in Korean, in Boas, J. and P. Buitelaar (eds.), *Proceedings of ESSLLI-98 (Tenth European Summer School in Logic, Language and Information) Workshop: Lexical Semantics in Context- Corpus, Inference and Discourse*, 1-15.
- Pustejovsky, James (1991),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in Levin, B. and S. Pinker (eds.) *Lexical & Conceptual Semantics*, Cambridge & Oxford: Blackwell.
- Pustejovsky, James (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 Pustejovsky, James. (2000). Lexical Shadowing and Argument Closure. In Ravin, Yael and Claudia Leacock (ed.). *Polysemy: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Approaches*, Oxford University Press.
- Rothstein, Susan (2004), *Structuring Events: A Study in the Semantics of Lexical Aspect*, Blackwell.
- Smith, Calota (1999), ACTIVITIES: STATES OR EV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2, 479-508.
- Talmy, Leonard (1985), Force dynamics in language and thought, In Papers from the Twenty-First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 Vendler, Zeno (1967), *Linguistics and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